

지식 경제 현안

■ 경쟁국에 뒤지는 국내 기업 교육 훈련

-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도 뒤쳐지는 국내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
 -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는 세계 9위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세계 29위로 하락
 - 이는 대만(세계 31위)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2위)는 물론 중국(19위), 말레이시아(26위)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수준
- 전반적인 교육 훈련비 감소와 더불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서 교육 훈련비 감소가 두드러짐
 - 간접 노동 비용 가운데 교육 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6년의 9.4%에서 외환 위기 이후인 98년에는 3.1%로 하락
 - 98년의 경우 기타서비스업의 교육 훈련비 감소율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47.3%), 교육서비스업(-41.2%), 금융 및 보험업(-35.4%),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34.5%) 등 서비스업의 교육 훈련비 감소가 큼
 - 96년에도 간접 노동 비용 가운데 교육 훈련비 비중이 2.7%에 불과하였던 중소기업의 경우 98년에도 교육 훈련비 증가율이 -30.6%(대기업 -26.6%)에 달함
 -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의 사업장 훈련 참여율이 99년 하반기에도 4.5%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추세는 9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
- 시사점 및 과제
 -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는 지식 경제 시대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의지와 인식 부족, 낮은 교육 훈련 투자 수준, 미래 성장산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교육 훈련 부진 등이 큰 문제임
 - 서비스 부문에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동 직업 훈련 시설 자금 대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인적 자원 개발 인증제(대표적인 예: 영국의 Investors In People 인증제) 도입 등 기업의 교육 훈련 촉진 정책 등이 요구됨

경쟁국에 뒤지는 국내 기업 교육 훈련

□ 기업 교육 훈련의 중요성

- 지식 경제 시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는 교육 훈련 투자임

- 지식 경제 시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여야 함
- 이 가운데 지식의 확산 및 활용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 훈련임
- 효과적인 교육 훈련 투자는 창출된 지식의 확산을 원활히 하고, 훈련 대상자의 지식 습득력을 제고시켜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임

- 특히 기업 교육 훈련이 중요함

- 중앙집권적인 정부 중심의 교육 훈련 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과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임
- 세계적인 경쟁과 직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이를 위한 훈련을 준비할 수 있음
- 결국 지식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 투자에 있어 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에 대한 국제 비교

- 최근에 들어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가 크게 뒤떨어짐

-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나에 대한 IMD의 설문조사 결과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교육 훈련 의지를 지님
-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서는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세계 29위로 나타나 크게 하락하였음

< 기업의 종업원 교육 훈련 의지에 대한 국제 비교 >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대 만	싱가포르	중 국	말레이시아
1998	9위	14위	2위	7위	12위	6위	29위	17위
1999	29위	14위	4위	8위	11위	3위	23위	18위
2000	29위	12위	6위	9위	31위	2위	19위	26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 2000년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교육 훈련 의지가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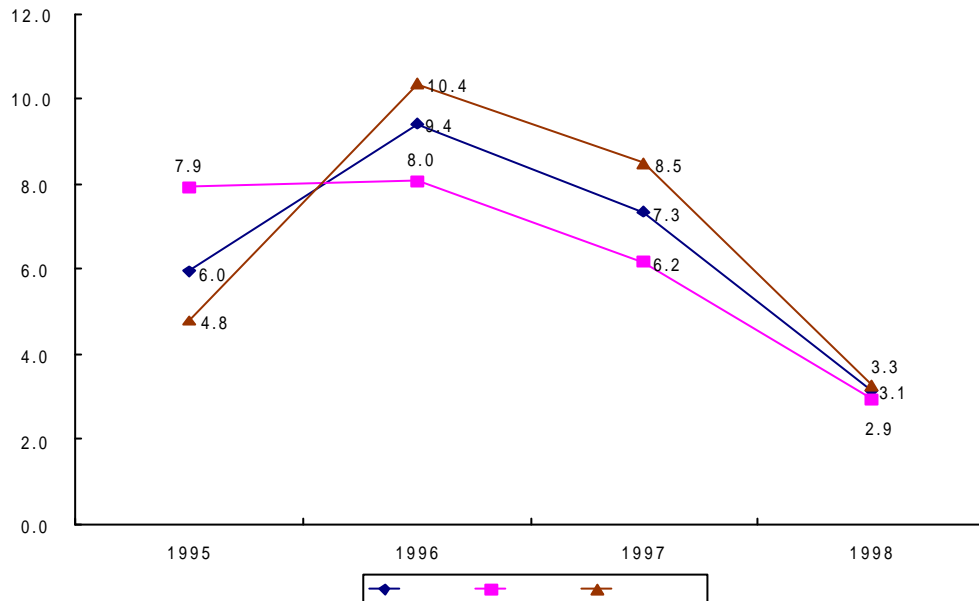
- 선진국인 일본(세계 6위), 독일(9위), 미국(12위)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 더욱 큰 문제는 대만(세계 31위)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2위) 뿐만 아니라 중국(19위), 말레이시아(26위)에 비해서도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가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임

□ 우리나라 기업 교육 훈련의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교육 훈련비가 크게 감소하였음

- 기업이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노동 비용 이외의 노동 비용인 간접 노동 비용 가운데 교육 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9.4%에 달하였음
- 그러나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인 98년에는 이 비중이 3.1%로 급격히 떨어졌음
- 이러한 교육 훈련비 비중 감소는 광공업이나 서비스업 등 산업별 구분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광공업의 경우 교육 훈련비 비중이 8.0%(96년)에서 2.9%로 5.1%p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은 10.4%(96년)에서 3.3%로 무려 7.1%p나 감소하였음
- 이는 외환 위기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

< 기업의 교육 훈련비 비중 추이 >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간접노동비용 중의 비중임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교육 훈련비 감소가 특히 심하였음

- 98년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의 교육 훈련비 감소율이 48.7%에 달해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은 47.3%, 교육서비스업은 41.2% 감소함
- 또한 도·소매업(-38.5%), 숙박 및 음식점업(-45.5%), 금융 및 보험업(-35.4%),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34.5%)의 교육 훈련비도 크게 감소함

< 산업별 교육 훈련비 증감률 추이 >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
1996	51.8	28.6	10.1	283.3	30.7	18.0	20.9
1997	1.3	31.1	1.6	-18.0	16.8	20.5	-25.1
1998	-26.8	-28.0	-29.4	-48.5	-25.8	-38.5	-45.5
	전산업	운수창고 등산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1996	51.8	150.5	105.9	1.7	70.7	34.1	220.6
1997	1.3	34.0	-15.5	2.3	-10.9	-3.5	-31.2
1998	-26.8	-10.2	-35.4	-34.5	-41.2	-47.3	-48.7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 규모별로는 원래부터 교육 훈련 투자가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교육 훈련비 감소가 두드러짐

-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최근 들어 교육 훈련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96년에도 간접노동비용 중 2.7%만(대기업 4.6%)을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었음
- 외환 위기 이후인 98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교육 훈련비 감소율(30.6%)이 대기업(26.6%)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이를 좀 더 세분해보면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는 2규모, 대기업 가운데에서는 4규모의 교육 훈련비 감소율이 각각 34.0%, 38.3%에 달해 가장 컸음

< 규모별 교육 훈련비 증감률 추이 >

	전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1규모 (30~99인)	2규모 (100~299인)	3규모 (300~499인)	4규모 (500~999인)	5규모 (1000인 이상)
1996	51.8	17.9	52.8	-12.5	27.4	-2.2	34.3	57.3
1997	1.3	-7.6	-1.4	0.0	-12.1	15.2	10.8	-3.5
1998	-26.8	-30.6	-26.6	-10.7	-34.0	-15.8	-38.3	-26.1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 1999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현황¹⁾

- 먼저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 보험의 대상 확대와 더불어 직업 능력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하반기의 사업장 훈련 참여율이 4.5%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짐
- 즉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이용도도 극히 미약한 실정임
- 다만, 1998년 11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직업 훈련 체제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으로 일원화되면서 그 이후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는 99년의 경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을 통한 지원 사업장이 145.3%, 지원 피보험자가 110.7%, 지원금이 103.2%나 늘어난 데서 명확히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참여 증대는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증대라기 보다는 주로 직업 훈련 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효과라고 판단됨

1) 기업의 노동 비용 자료는 99년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최근에 들어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의 수준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실적으로 평가함

지식 경제 현안

- 이는 유급 휴가 훈련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 99년 지원 금액이 57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2%나 감소한 데서 알 수 있음
- 더불어 직업 훈련 시설 장비 구입 대부 및 지원 실적 역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지원사업장		증감률	지원피보험자		증감률	지원금		증감률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소계	25,912 (100.0)	58,288 (100.0)	222.4	588,006 (100.0)	977,952 (100.0)	79.8	258,043 (100.0)	424,851 (100.0)	64.6
직업능력 개발훈련	17,741 (68.5)	43,512 (74.7)	145.3	408,603 (69.5)	781,408 (79.9)	110.7	40,781 (15.8)	82,869 (19.5)	103.2
유급휴가 훈련	339 (1.3)	333 (0.6)	-1.8	3,940 (0.7)	8,446 (0.9)	114.4	9,117 (3.5)	5,723 (1.3)	-37.2
수강 장려금	-	-	-	2 (0.0)	51 (0.0)	2450	1 (0.0)	40 (0.0)	3900
근로자학 자금 대부	7,832 (30.2)	14,443 (24.8)	84.4	12,350 (2.1)	17,362 (1.8)	40.6	16,949 (6.6)	30,042 (7.1)	77.2
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	-	-	163,111 (27.7)	170,685 (17.5)	4.6	191,194 (74.1)	306,176 (72.1)	6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 제5권 1호, 2000. 봄

- 주: 1) 1998년은 여상지원금 합계임
 2) ()안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구성비(%)임
 3)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 시사점 및 과제

-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는 미래 성장의 걸림돌

-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가 뒤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나 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해오고 있는 경쟁국에 비해 기업의 교육 훈련 의지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임
- 이는 향후 인적 자원에 체화된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후발 경쟁국의 기업들에게도 추월당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줌
- 즉, 이렇게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의지가 뒤떨어지고, 이로 인해 인적 자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의 낙후와 이에 따른 미래 성장 기반의 침식이 당연히 나타날 것임

-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 수준 미흡

-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교육 훈련 투자부터 감소시키고 있는데다가, 교육 훈련 투자의 비중 자체도 간접 노동 비용의 10% 미만, 총 노동비용의 1~2%에 그치고 있음
- 결국 기업들은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로는 미래 성장 산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이 특히 문제

- 경제의 소프트화와 지식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교육 훈련 투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더욱 큰 문제임
- 서비스업의 교육 훈련 투자 부족 문제는 기업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에도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부문에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절실

-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적절한 지원 정책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접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업 훈련 시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기업 교육 훈련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전반적인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가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IIP(Investors in People) 인증제, 싱가포르의 PD(People Developer)와 같은 인력 개발 조직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 자원 개발 체계의 구축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이밖에 직접적으로는 교육 훈련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등의 조치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홍성민 연구위원 hsamu@hri.co.kr ☎3669-4013